

가가유젠

가가유젠은 ‘고사이(오채)’라고 불리는 독특한 5 가지 색을 바탕으로 선명하고 사실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손으로 그린 무늬로 비단 천에 표현하는 염색 기법입니다. 이는 교토의 교유젠, 도쿄의 에도유젠과 함께 ‘일본 3 대 유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가가유젠은 가방이나 스카프 등 천으로 만든 소품뿐만 아니라 고급 기모노 장식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가가유젠의 역사는 16 세기, 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 해당하는 가가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가번은 일본을 대표하는 견직물의 주요 생산지였으며, 염색물을 씻어내기 적합한 강과 용수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가 특유의 단색 염색기법인 ‘우메조메’가 있었는데, 이것이 가가유젠의 시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7 세기 중반에 이르러 장인들은 천에 간단한 무늬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가유젠은 유명한 비단부채 그림장인이었던 미야자키 유젠(?~1758)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법을 확립하며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역사상 기록은 여러 가지이지만, 미야자키 유젠은 가가 출신이거나 1712 년경 교토에서 가나자와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젠은 다채로운 색 표현이 가능한 ‘방염’ 기술을 고안했으며, 이 기술은 가가의 염색장인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유젠의 영향과 더불어 재력을 자랑하던 마에다 가문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가가유젠은 세련된 예술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가유젠의 제작공정은 화가가 구상한 이미지나 연속적인 문양을 종이에 그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안이 완성되면 그 윤곽을 닭의장풀 꽃에서 얻은 즙을 이용해 하얀 비단 천에 옮깁니다(닭의장풀 즙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로 씻어내면 지워집니다). 다음으로 전용 종이튜브에 풀을 넣고, 윤곽을 따라 풀을 짜가며 얇게 풀로 선을 그려 나갑니다. 이 풀이 채색과정에서 염료를 밀어내어 염료가 문양 밖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 과정은 가가유젠 제작의 핵심인 채색입니다. ‘가가고사이(가가오채)’라고 불리는 남색, 연지, 황토, 풀색, 고대 자주색의 5 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한 배색으로 그림의 각 부분을 손으로 그려가며 농담을 주면서 풀로 그은 윤곽 안쪽을 채색합니다. 꽃 무늬의 경우, 꽃잎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붓으로 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하면 꽃잎 바깥쪽이 가장 진하고,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열리는 가가유젠 특유의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교유젠에서는 이 그라데이션 방향이 반대입니다. 완성된 작품의 아름다움과 품격이 이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과 뛰어난 색감이 요구됩니다.

문양 채색이 끝난 후, 천에 증기를 쐬어 색을 정착시킵니다. 그런 다음 배경색을

염색하기 전에 풀로 문양부분을 완전히 덮어씹습니다. 이를 통해 풀이 배경색 염료를 막아주어 이미 채색된 문양과 섞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배경색 염색 역시 폭이 넓고 털이 짧은 붓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천의 넓은 범위를 균일하게 염색하려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후 다시 한 번 증기를 쐬어 배경색을 정착시킵니다.

이렇게 천의 모든 염색단계가 끝나면 다음은 물세척 과정입니다. 차가운 물과 단단한 붓을 사용해 닭의장풀 즙과 풀, 남아 있는 염료를 씻어냅니다. 이 과정은 전통적으로 자연 하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염색된 천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대에 묶어서 진행합니다. 현재는 많은 공방에서 얇은 수조에 물을 채우고 흐르는 물로 세척작업을 하지만, 가나자와에서는 지금도 겨울이 되면 아사노 강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천을 세척하는 장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가유젠에는 도안을 손으로 그리지 않는 이타바유젠이라는 기법도 있는데, 이는 가타유젠 또는 가가코몬조메라고도 불립니다. 이타바유젠에서는 도안을 새기고 감귤나무 즙으로 단단히 굳힌 형지를 사용해 하얀 바탕에 한 색씩 색을 입혀 나갑니다. 이는 일종의 목판화나 현대의 스크린 인쇄와 비슷한 방법입니다.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진 정교하고 섬세한 무늬는 손으로 그린 유젠과는 또 다른 매력과 독특한 질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유젠조메는 1955 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이시카와현에는 보유자가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55 년에 인정을 받은 기무라 우잔(1891~1977)이며, 또 다른 한 사람은 2010 년에 인정을 받은 후타쓰카 오사오(1946~)입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나들이옷, 족자, 병풍 등 다양한 가가유젠 작품을 다수 소장하고 있습니다.